

9월6일(월)/로마서9:14~18

제목: 하나님의 절대주권 (2)

하나님은 공홀이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14절). 하나님은 이 은혜를 ‘원하는 자’ (15절)에게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공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 즉, ‘달음박질 하는 자’ (15절)에게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홀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베푼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에굽의 바로가 바로 그 예이다.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철저히 자신의 공홀을 감추셨다. 하나님은 철저히 바로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철저히 바로를 강박케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17절). 바로의 강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게 되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따라왔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도 유용한 목적으로 쓰신다(18절). 하나님은 악한 자도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속에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이루고 있다.

9월7일(화)/로마서9:19~29

제목: 하나님의 절대주권 (3)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는 주제를 야기시킨다(19절). 이에 바울은 세 가지로 답변한다. 첫째, 바울은 예레미야서의 토기장이 비유를 인용하였다(21~24절).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 할 수 없듯이 인간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바울은 창녀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를 인용하였다(25~26절).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였는데도 계속 바람을 피웠다. 어느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호세아는 아무리 봐도 자신을 닮지 않아서 아이 이름을 ‘이는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었다. 이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사랑한다’ 는 교훈을 남기셨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바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만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였다(27~29절).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중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이다. 우리도 본래는 다 죽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어쩌다 말할 처지가 아니다.

9월8일(수)/로마서 9:30~33

제목: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기회를 주셨다(30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31절).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량한 인간만 되면 구원을 얻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행위 구원, 율법 구원을 이루려는 자에게는 예수는 걸림돌이며 거치는 바위가 된다(33절). 그러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그 의는 믿음에서 난 의였다.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애를 쓰는 유대인들은 구원 밖으로 밀려났다. 오늘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가 깨끗해서, 자기가 옳아서, 자기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자기가 수양을 해서, 자기가 도를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은 다 자기 의를 따르는 일이다.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아들 믿는 것뿐이다.

9월9일(목)/로마서10:1~15(1)

제목: 죄가 사라지는 옷

바울의 간절한 바람 중 하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다(1절).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2절). 그들은 열정은 있었다. 그러나 진리에는 무지하였다. 모든 열심이 다 진리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무지한 열심만 내었다. 오히려 그런 무지가 자기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또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3절). 의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의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만들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꾸 논리대로 의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의는 예수님 안에 있다(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가까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를 허락하신다. 즉, ‘죄 없음’ 을 허락하신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의 옷을 입는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죄가 없어지는 옷’ 을 입혀주신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신비한 옷을 입는 것과 같다.

9월10일(금)/로마서10:1~15 (2)

제목: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온다(9절).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한다. 입으로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온다(10절).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이미 입술에 있다. 구원은 이미 마음에 있다. 구원은 특정한 혈통이나 인종이나 가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12절). 구원받은 자는 두 가지 복을 받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는 복(11절)과 ‘부요’의 복을 받게 된다(12절)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영적인 부요함, 삶의 부요함이 온다. 지금까지 불교를 믿었건, 이슬람을 믿었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였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구원이 온다.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구원은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고, 성경을 한번 다 읽어야 하고 얻는 것이 아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교회 나와도 된다. 그것을 고치고 교회 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모든 것도 해결이 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